스위스테이너블(Swisstainable).

올여름, 스위스에서 지속가능한 체험

거울 같은 호수에서 카약 투어
수력전기와 제동 에너지 활용하는 산악 철도
자동차 금지 시킨 산악 마을
세계기록 보유한 지속가능한 케이블카와 톱니바퀴 열차
호수 너머로 스탠드 업 패들

스위스테이너블이란?
코로나의 한복판에서 전 세계 사람들이 '지속가능성'을 고민하기 시작했을 때, 스위스정부관광청은 '스위스테이너블'이라는 캠페인을 론칭했다. 지속가능하다는 뜻의 '서스테이너블(sustainable)'에 '스위스'를 합쳐서 만든 말이다.

스위스정부관광청은 '지속가능한 여행'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스위스에서 지속가능한 여행이란 불편하고 부족한 여행이 아니라 더 나은 인식과 깊이, 더 큰 즐거움을 의미한다. 차분한 마음으로 스위스 자연의 품에서 최대한의 휴식을 취해보는 것이 가장 지속가능한 여행이다. 그래서 여행을 할 때 우리는, 아래와 같은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설명한다.

1. 자연을 한층 가까이, 직접 즐길 수 있어야 하고
2. 정통적인 방식으로 현지 문화를 체험할 수 있어야 하며
3. 지역 생산물을 소비하고
4. 한 곳에 더 오래 머물고 깊이 파보는 여행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스위스에서 지속가능한 체험
세계에서 제일 촘촘한 철도망을 가진 스위스에서 대중교통으로, 자전거 두 바퀴로, 하이킹으로, 지속가능한 여행을 체험해 볼 수 있다. 스위스테이너블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숙소와 레스토랑, 카페에서는 자연과 한층 가까워져 볼 수 있다. 올여름, 스위스에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체험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아래와 같이 소개한다.

1. **인터라켄(Interlaken) 주변의 물 체험**
   인터라켄 주변 지역에서는 다채로운 워터 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 누구나 즐겁고 쉽게 즐길 수 있는 액티비티다. 브리엔츠(Brienz) 호수의 거울 같은 수면 위로 카약 투어를 즐기거나, 와일드한 계곡물을 따라 래프팅을 즐기거나, 카누 등 다양한 워터 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 물론, 모두 지속가능한 액티비티다.

2. **융프라우(Jungfrau) 철도의 사람과 환경에 대한 자세**
   융프라우 철도는 지속가능성을 중시한다. 약 100 년 전 융프라우 철도 건축 당시부터 환경 및 사회적 책임은 항상 기업 철학의 일부가 되어왔다. 융프라우 철도에서 운행하는 케이블카 및 산악 기차는 현대적인 기술이 환경과 조화를 이룬다. 건축 및 운행 과정에서 에너지 효율성을 중시한다. 그 예로, 아이거 익스프레스(Eiger Express) 곤돌라는 특별한 기술을 이용해 승객과 화물을 수송한다. 그 덕분에 케이블카 지지대를 7 개밖에 사용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숲의 훼손을 최소화했다. 산악 철도를 운행하는 데 있어서는 수력발전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자체적으로 소유한 수력발전소도 있다. 제동 에너지를 전환해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기술도

적용되어 있다. 베른 대학과 함께 탄소 중립 목표에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다. 융프라우 철도의 케이블카나 기차를 타는 것 만으로도 알프스를 지속가능하게 오르는 체험을 할 수 있는 셈이다.

3. 자동차 금지 마을, 벵엔(Wengen)

해발고도 1,274m 의 라우터브루넨(Lauterbrunnen) 계곡 400m 위, 융프라우(Jungfrau) 발치에 자리한 햇살 가득한 언덕 마을로, 주변 산봉우리가 바람을 막아주는 휴양 리조트다. 전통이 깊숙이 베어 있는 자동차 진입 금지 마을로, 융프라우 지역 휴가에 거점 마을로도 큰 몫을 하고 있다. 클라이네 샤이덱(Kleine Scheidegg), 맨리헨(Männlichen), 그린델발트(Grindelwald), 피르스트(First) 같은 주변 마을로는 화려한 하이킹 트레일이 그물같이 연결되어 있다. 이정표가 설치된 하이킹 트레일만 500km 가 넘고, 아름다운 전망을 품은 주변 지역으로 연결되는 케이블카만 15 종류다. 그중에서도 벵엔과 클라이네 샤이덱을 연결하는 하이킹 트레일이 무척 아름다운데, 아이거(Eiger)의 북벽을 바라볼 수 있다. 패러글라이딩이나 래프팅, 카누도 체험해 볼 수 있다.

4. 루체른(Luzern) 호수 지역의 세계기록

루체른 호수 지역에는 세계기록을 보유한 산이 많다. 그리고 그만큼 다채롭고 아름답다. 텔-패스(Tell-Pass)를 구입하면 이 모든 곳을 보다 편리하고 경제적으로 여행할 수 있다. 중앙 스위스의 기차, 버스, 유람선과 특정 산악 열차를 정해진 기간 동안 무제한 이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곳에서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세계 최초의 공중회전 케이블카가 있는 티틀리스(Titlis), 세상에서 제일 가파른 톱니바퀴가 있는 필라투스(Pilatus), 유럽 최초의 톱니바퀴 산악 열차가 있는 리기(Rigi)가 대표적이다. 카본 오프 세팅 프로젝트로 기후 보호에 적극적인 루체른 호수 유람선과 루체른과 인터라켄을 이어주며 아름다운 초원과 호수의 풍경을 선사하는 루체른-인터라켄 익스프레스(Luzern-Interlaken Express)를 타보는 것도 루체른에서의 지속가능한 여행법이다.

5. 100% 수력으로 운행되는 독특한 산악 여정

100% 수력전기로 운행하는 케이블카가 있다. 쉴트호른(Schilthorn)이다. 007 로케이션으로 사용되었던 쉴트호른 정상에는 360 도 회전 레스토랑, 피츠 글로리아(Piz Gloria)가 융프라우 지역의 화려한 파노라마를 펼쳐낸다. 쉴트호른 정상을 오르는 케이블카는 라우터브루넨(Lauterbrunnen) 계곡에서 발전하거나 지역 발전소에서 공수한 수력전기 100%로 운행된다. 한창 진행 중인 신축 케이블 웨이를 통해 더욱 적극적인 지속가능성 기술을 도입하게 된다. 수력전기로 쉴트호른 정상에 올라 청량한 알프스 공기를 마시며 지속가능한 체험을 할 수 있다.

6. 자동차 진입이 금지된 체르마트(Zermatt)의 수력발전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많이 촬영되는 봉우리, 마테호른(Matterhorn)이 내려다보는 마을, 체르마트는 휘발유 차량이 금지되어 있고, 마을 안에서는 전기차만 운행된다. 유럽에서 가장 높은 케이블카 역(3,883m)이 있는 마테호른 글래시어 파라다이스(Matterhorn Glacier Paradise)와 4,000m 급 봉우리 29 개가 펼쳐지는 고르너그라트(Gornergrat: 3,089m)까지 이어지는 톱니바퀴 열차도 지속가능성에 있어서라면 세계적인 주목을 받을 정도다. 이런 산악 철도를 통해 400km 에 달하는 하이킹 트레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바이킹, 클라이밍, 알프스 고지대 투어는 체르마트의 여름을 더욱 깊숙이 체험할 수 있게 해준다.

Switzerland Tourism Korea
77 Songwol-gil, Jongno-gu, Seoul 03165
MySwitzerland.com

7. 스탠드 업 패들 위에서 바라보는 탄소 배출 제로 취리히

SUP 는 스탠드 업 패들(Stand up paddle)의 약자로, 스위스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수상 스포츠다. 패들을 리드미컬하게 저으며 부드럽게 앞으로 나아가는 물소리와 함께 자유와 해방의 기분이 펼쳐진다. 취리히의 스트란드바드 티펜브루넨(Strandbad Tiefenbrunnen), 스트란드바드 미텐케(Strandbad Mythenquai), 제바드 우토케(Seebad Utoquai)를 찾아가면 스탠드 업 패들을 체험해 볼 수 있다. 3-4m 길이의 보드에 서서 노를 저으며 아름다운 취리히 호수를 유유자적하게 즐길 수 있다. 처음 배우는 것도 어렵지 않아 관광객들도 쉽게 도전해 볼 만하다. 게다가 스탠드 업 패들로 취리히 명소를 둘러볼 수 있는, SUP 시티 투어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어 참가해 볼 만하다. 이른 새벽 고요 속에서의 글라이딩이든, 하루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오후 한때의 패들링이든, 낭만적인 저녁노을을 바라보며 물을 향해 나아가든, SUP 는 모두가 하루 중 언제나 즐길 수 있는 지속가능한 스포츠임이 분명하다.

자료 협조: 스위스정부관광청 www.MySwitzerland.com

Switzerland Tourism Korea
77 Songwol-gil, Jongno-gu, Seoul 03165
MySwitzerland.com